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5 월 의 인 사 :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 더! 속도원들에게 보고싶다고 한 번 더! 성도들에게 건강하시라고 한 번 더!"
- 현 금 명 세 서 : IRD제출용 현금명세서를 발행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에 방문하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화~금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 예 배 안 내 : 모든 예배는 온라인 실시간, 또는 녹화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영상으로 예배 할 때에도 교회에 오는 것과 똑같이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과 태도를 구별하여 정성껏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예배는 가능하면 휴대폰보다는 노트북이나 컴퓨터, 혹은 TV에 연결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실 시 간 예 배 : 새벽 기도회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금요은혜의 밤은 매주 금요일 밤 8시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 유튜브에서 "뉴질랜드광림교회"를 검색하시고, 교회로고를 클릭하여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예배 후 낮시간에도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 현 장 예 배 안 내 : 모임회집인원의 조정에 따라서 현장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즉시로 현장예배를 재개합니다. 주일예배-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 교회학교-오전 11시 / 청년-오후 2시 모든 예배는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주일 및 주중 예배) 조치가 시행 되는대로 속장카톡방을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 개 인 건 강 관 리 : 개인위생과 건강관리를 스스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씻기를 생활화하시고, 몸이 아프면 외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늘 강건함 가운데 거하시길 기도합니다.
- 현 금 안 내 : 모든 헌금은 가정에서 드리고, 교회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 한번에 봉헌하셔도 되고, 계좌로 하셔도 됩니다. 편리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헌금은 봉헌명단 내 박스 광고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안내 및 모임

예배	요일	시간	장소	예배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영유아예배	주일	오전 11:00	유치부실
2부	주일	오전 11:00	본당	아동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이동부실
새벽예배	매일 새벽	새벽 5:30	본당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벨렐성전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벨렐성전
금요 은혜의 밤	금요일	오후 8:00	본당				

COVID-19 (신종 코로나) 관련 안내

- 1.교회는 정부시책으로 인해 개방되지 않습니다.
- 2.개인위생과 건강 관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자주 비누로 손 씻기, 손소독제 사용하기)
- 3.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악수 및 신체접촉 자제)
- 4.기침 및 재채기시 주의 하고, 아프면 외출 자제
5. Healthline(080-358-5453)

찾아오시는 길



기독교대한감리회
뉴질랜드광림교회

NEW ZEALAND KWANGLIM METHODIST CHURCH

교회 포어 :

복음 전하며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 (사52:7)

광림교회 전통

1. 적극적인 신앙
2. 풍요한 창조
3. 성실한 생활
4. 사랑의 실천
5. 일치된 순종

담임목사

정 명 환

Senior Pastor / Rev. Myunghwan Jung

hp. 021-0294-0035

섬기는 이들

- 전 도 사: 김성원 최지원
- 시 무 장 로: 홍순정 관광섭
- 원 로 장 로: 김장수 윤재홍
- 명 예 장 로: 최창근 김정환
- 강 단 미 화: 염영숙 우윤선
- 성 가 대 지 휘: 이영임 조혜원
- 피 아 노: 박현희 정수진
- 오 르 간: 정인애 조은경
- 오 케 스 트 라: 오유미 유이레
- 정성결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 1 타우포한인교회 지구 (정재권목사)
- 2 신흥교회 지구 (송훈희목사)
- 3 네이피어동행교회 지구 (이국환목사)
- 4 해밀턴교회 지구 (김주용목사)

주일예배순서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사회. 정명환 목사

전	주 Prelude	반	주	자
목	도 Silent Prayer	다	갈	이
※ 찬	송 Hymn 8장(통9)	다	갈	이
※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53번(시편121편)	다	갈	이
※ 송	영 Doxology 4장(통4)	다	갈	이
※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다	갈	이
찬	송 Hymn 312장(통341)	다	갈	이
대 표	기 도 Prayer	정	명	환 목사
주 기	도 문 송 Lord's Prayer Hymn 635장	다	갈	이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사도행전 26:27~29 Acts 26:27~29	정	명	환 목사
설	교 Sermon 90프로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정	명	환 목사
찬	송 Hymn 452장(통505)	다	갈	이
헌	금 Offering	헌	금	송 : 헤세드찬양단
※ 기	도 Offering Prayer	정	명	환 목사
※ 송	영 Ascription 1장(통1)	다	갈	이
광	림코이노니아 Koinonia(Welcome)	정	명	환 목사
※ 찬	송 Hymn 357장(통397)	다	갈	이
※ 축	도 Benediction	정	명	환 목사

♪종으신 하나님♪

※ 표는 일어서서 Stand at this sign

수요 치유의 신학

가정예배

속회공과를 이용하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은혜의 밤

유튜브 실시간 방송기도회 **오후 8:00 (금)**

인 도 정 명 환 목사

매일새벽기도회

유튜브 실시간 방송예배 **새벽 5:30 (매일)**

인 도 역대상 정명환목사(월~금)
최지원전도사(토~일)

속회 보고

속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 기도제목

1.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 마음껏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 할 수 있게 하옵소서.
2. 뉴질랜드 광림의 권속들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영육의 강건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지켜 주옵소서.
3. 우리 대한민국과 뉴질랜드와 세계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뉴질랜드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한국 땅을 주의 은혜로 보호해 주옵소서.
-지구촌 세계 곳곳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4.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 향기로운 예물

헌금 안내.

헌금은 계좌로 하셔도 되고, 현장예배가 재개 되었을 때에 한번에 봉헌하셔도 됩니다.
(봉헌명단은 회집예배가 재개 되었을 때에 한번에 기재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계좌번호. ANZ 06-0229-0414105-00

Their Statement

Particulars 안쓰셔도 됨
Code 헌금종류(필수아님)
Reference 성함(필수항목)

헌금종류 안내 (Code란에)
십일조 : 11 / 선교 : Mi
기록없음 : 감사 및 주일헌금

다음주 예배안내

예배위원 (5/31)

사	회	부
부	부	부
기	도	부
부	부	부
성	경	부
부	부	부

5월 안내/헌금위원

1부	
2부	
3부	

주차안내

금 주	
다음주	

차량운행

--

주방봉사

금 주	
다음주	

존 웨슬리의 일기(The Journal of John Wesley)

1738년 5월 24일 수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벧후 1:4). 내가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오늘 아침 5시경이라고 생각된다. 내가 나오기 직전에 읽은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막12:34)는 말씀이었다. 오후에 나는 세인트 폴 교회에 오라는 청을 받았다. 거기서 부른 찬송가는 이런 것이었다. “여호와와 내가 깊은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네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와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저녁에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채 올더스게이트 가(Aldersgate Street)에 있는 어느 회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되어서 그가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나는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나는 악의적으로 나를 이용했거나 박해한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나서 나는 생전 처음 내 마음속에 느낀 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터놓고 간증을 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원수 같은 마귀는 넌지시 이렇게 속삭였다. “이것은 믿음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기쁨은 어디 있냐?” 그때에 나는 배웠다. 평안과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 구원

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통 처음에 생기는 황홀한 기쁨, 특히 깊이 애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기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주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다.

집에 돌아온 후에 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몹시 괴로웠다. 그러나 큰 소리로 외쳤더니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그 시험은 자꾸 되돌아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자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곳으로부터 나에게 도움을 보내주셨다.” 나는 여기서 이런 체험과 주로 전에 일관되었던 나의 신앙 상태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싸웠다. 그렇다. 나는 율법 아래서 뿐만 아니라 은총 아래서 역시 있는 힘을 다하여 투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는 자주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때때로 승리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5월 25일 목

잠에서 깬 순간 “예수, 나의 주님”은 나의 마음과 나의 입 속에 계셨다. 오로지 내 눈이 주님만을 지켜보고 내 영혼이 주님만을 계속하여 섬기는 곳에 내 모든 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오후에 세인트 폴 교회에 다시 갔을 때에 거기서 부르는 찬송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수 있었다. 그가 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내 노래로 항상 주의 자비하심을 찬송하리니, 내 입으로 주의 진리를 영원히 증거하리라.” 그런데도 원수는 두려움을 넣어주었다. “네가 정말 믿는다면 더 뚜렷한 변화는 왜 없느냐?” 나는 (사실은 내가 아니지만)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것은 안다. 나는 현재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 오늘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예수 나의 주님은 내일 염려를 하지 말라고 내게 명령하셨다. 이것은 분명히 안다.”